

讀書의 生活化 方案

Suggestions for the Habituation of Good Reading in Life

邊 宇 烈(Woo-Yeoul Byun)*

목 차

- | | |
|-------------|--------------------|
| I. 緒論 | Ⅲ. 讀書生活化의 前提條件과 方案 |
| Ⅱ. 習慣과 生活化 | 1. 讀書生活化의 前提條件 |
| 1. 習慣의 意義 | 2. 讀書의 生活化 方案 |
| 2. 習慣形成과 教育 | Ⅳ. 要約 및 結論 |
| 3. 習慣의 生活化 | |

초 록

情報社會에서는 過去의 教養이나 趣味를 위한 讀書보다는 生存을 위한 讀書, 知識이나 情報獲得을 위한 讀書가 重視되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生活 그 自體가 되어야 하고, 生活의 一部分이 되어 讀書가 生活化되어야 한다. 讀書를 生活化하기 위해서는 먼저 讀書習慣을 形成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 讀書를 포함한 모든 行爲의 生活化는 學習된 習慣과 經驗을 反復하여 그 結果가 有機體의 欲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런 報償도 없고 興味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生活化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讀書의 生活化는 여러 가지 日常生活의 行動樣式이 習慣化되는 것과 같이 形態化, 練習과 強化, 動機附與의 段階가 필요하다.

讀書를 生活化하기 위한 方案은 圖書에 대한 親近感을 길러 주고, 讀書興味를 誘發시켜 줌과 동시에 學習讀書를 實施하고, 讀書에 대한 充分한 報償과 動機附與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get children in the information age of today to develop good reading habits and make reading a central part of their lives from an early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gain the habit of reading books from their early childhood during activities such as eating food, sleeping, studying, playing, going errands and watching TV etc. 2. The habituation of reading is formed by repeating and reenforcing the habit once it is acquired. Then we will do it easily, unconsciously and automatically. 3. Habituation is formed by the course of formalizing, training, reenforcing, and motivating like other daily activities. 4. The prerequisites of habituation for reading are the early integration of reading books, putting reading books at the core of curriculum, developing an interest in reading, motivating to read books, giving good rewards for reading, and simply encouraging reading. 5. Lastly, other ways to form good reading habits are inducing interests in books and reading books, and reading in the course of learning.

* 公州大學校 文獻情報教育科 教授
접수일자 2000년 5월 8일

I. 緒論

취미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흔히들 『讀書』라고 대답한다. 情報社會에서는 讀書을 취미로 하거나 教養水準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情報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情報社會에서는 讀書을 趣味로 할 수 있는 性格이 아니다. 讀書은 現代生活에 있어서 生活의 一部分이 되어야 하며, 生活 그 自體라야 한다.

과거의 産業社會에서는 大量生産이 競爭力을 左右하였으나 情報社會에서는 知識과 情報가 중요한 生産要素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産業社會의 生産활동이 資本·勞動·土地의 3대 요소로 이루어졌다면, 情報社會에서는 이러한 3요소 이외에 知識과 情報가 중요한 生産要素로 추가되었다¹⁾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産業社會의 敎育은 知識의 傳授가 주요 機能이었으나, 현재는 全世界的으로 하루에 2만편의 論文이 生産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流通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知識의 量이 4년에 2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 엄청난 知識과 情報를 모두 수용하여 暗記한다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그래서, 爆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知識과 情報중에서 자신이 必要로 하는 情報과 知識을 찾아 내어 活用하는 能力을 길러 주는 敎育이 重要하게 된 것이다. 결국, 情報時代에서는 독서를 통한 問題解決能力과 정보의 蒐集, 가공, 再生産 등의 情報處理能力을 육성하는 것이 國家存立의 關건이라 하겠다.²⁾

우리는 독서하면 國語科目과 연관시키고, 讀書은 문학읽기 내지는 소설읽기 정도로 생각하

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文學은 다만 讀書資料의 한 영역일 뿐이다. 情報社會에서는 다양한 主題分野와 接近하고, 다양한 文化와의 交流를 통하여 人格完成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問題解決能力과 情報處理能力을 길러 주는 것이 關건이기 때문에 教養과 趣味를 위한 讀書보다는 生存을 위한 讀書, 情報와 知識獲得을 위한 讀書가 중시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情報社會에서 讀書은 生活의 一部分이 되어야 하고, 生活 그 自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讀書習慣을 形成하여, 讀書을 生活化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물론, 學校에서 讀書敎育을 無計劃의으로 形式的으로 實施할 것이 아니라 敎育課程속에 重要的 要素로 포함시켜 體系的인 讀書敎育을 實施할 수 있는 行政的인 뒷받침이 讀書生活化의 重要的 要因이다. 이러한 行政적인 문제를 떠나서 모두들 독서의 必要性和 重要性은 認定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독서를 習慣化하고, 生活化하는 方案에 대해서는 代案이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기본적으로 習慣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부터 접근하여, 讀書을 生活化하는 方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習慣과 生活化

1. 習慣의 意義

習慣은 有機體가 어떤 일정한 環境 내지 事態

1) "책 읽는 사람을 길러 내는 敎育 이루겠다." 출판저널, 제238호(1998. 6. 20), p.16.

2) "초·중·고 권장도서 연발발표." 경향신문, 제16,456호(1998. 6. 11), p.14.

에 대한 反應의 樣式을 말한다.³⁾ 어떤 일정한 環境이나 刺戟에 대한 有機體의 反應은 그것이 자주 反復될 때 그 반응은 빨리 나타나고 비교적 일정한 形態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 反應은 점점 용이하게 되어 마침내는 아무런 意識이나 努力을 수반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反應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그 環境 내지 그 事態에 대해서는 하나의 定型의인 反應이 無意識의으로 機械的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習慣은 反復의인 施行을 통하여 쉽고, 친숙해져서 深思熟考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自動的으로 하게 되는 行爲 또는 反應樣式이다.⁴⁾

習慣은 經驗에 의하여 習得되는 學習의 結果이므로 本能과 反射와 같은 生得的 反應과 對立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습관은 生得的인 反射運動과는 달리 後天的으로 同一한 經驗을 거듭함에 따라서 形成되는 것이다. 그리고, 習慣은 일단 形成되어 버리면, 그 반응은 一般的으로 定型的으로 되어 自動的으로 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目的的 行爲이나 意圖的 行爲과도 對立된 意味로 사용될 때가 있다. 이러한 반응의 自動性 習慣 때문에 習慣은 제2의 天性이라고 한다.⁵⁾

그리고, 人間의 日常生活에서의 여러 가지 양식 즉 食事, 衣服, 말투, 理解하는 方式, 느끼는 방식 등은 모두 習慣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범위를 확대하여 風俗, 社會的 慣習, 道德的 傳統 같은 것은 모두가 그 사

회에서 生活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習慣이 基礎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習慣은 個人에게 特有的 것이며, 이 습관들이 쌓여서 그 人間의 習性을 形成하게 된다. 이것은 行爲이나 思考의 양식인 習慣의 蓄積에 의하여 그 人間에게 고유한 習性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習性의 蓄積과 統合에 의하여 그 人間의 自我가 形成되고, 그 自我가 人格(personality)의 中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때, 人格의 바탕은 習慣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의 올바른 存在方式에 대해서는 習慣의 形成이 매우 重要的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좋은 生活과 바람직한 人格은 좋은 習慣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習慣形成과 教育

周圍環境의 影響으로 동일한 行爲를 反復함으로써 어떤 刺戟만 제공되면 그러한 行爲를 反射的으로 보이게 되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習慣이 形成되었다고 한다.⁶⁾

人間의 習慣은 그 人間이 세상에 태어나서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後天的으로 形成된 것이다. 習慣은 一般的으로 練習이나 反復에 의하여 形成된다고 보는 傾向이 강하다. 그러나, 단 한번의 經驗으로 習慣이 形成될 수도 있으므로 反復은 習慣形成의 必須條件은 되지 못한다. 그렇

3) 活用教育大事典(서울: 信進出版社, 1972), p.286.

4) 서울大學校 教育研究所, 教育學用語辭典, 全訂版(서울: 하우, 1994), p.415.

5) 教育學事典(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65), p.491.

6) 서울大學校 教育研究所, 教育學用語辭典, 全訂版(서울: 하우, 1994), p.415.

지만 形成된 習慣이 定型化되고 自動化하기 위해서는 역시 反復이 重要な 要因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⁷⁾

그러면, 習慣은 學習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와트슨(Watson, J. B.)은 習慣을 學習과 同一한 意味로 使用하였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헐(Hull, Clark L.)이 주장한 習慣強度(habit strength = sHr)라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헐의 理論에서 學習은 일련의 強化된 施行을 통하여 習慣이 증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習慣強度는 다른 條件을 一定하게 해 놓고, 同一한 시간간격으로 強度를 높여 나가면, 그 결과로 생기는 習慣은 『sHr = 1-10-Pn』의 公式에 따라 試行回數가 증가하는 成長函數로 그 強度는 增大한다'고 公式化되어 있다.⁸⁾ 結局, 이 말은 어떤 反應에 대한 強化의 힘과 시간이 더 적당할수록 習慣의 強度가 강해지며, 그 反應이 報償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 反應의 強度가 증가된다⁹⁾고 보는 견해라고 하겠다.

또한, 헐은 反應等價의 事實을 條件化의 立場에서 說明하려고 習慣族階層(habit family hierachy)이라는 假說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要求充足을 實現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지점까지 가는 通路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동일한 刺戟에 의하여 동일한 反應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통로는 동등한 反應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을 形成하는데 이것을 習慣族이라고 한다. 이러한 習慣族은 선호되는 순서대로 배열되어, 習慣

의 體系가 공통 목표자극에 統合되고 선호순서로 정리되어 習慣族의 階層을 形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習慣族에 속하는 하나의 反應系列에 의하여 問題의 解決에 成功하게 되면, 이러한 族의 다른 成員, 특히 階層內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成員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特別한 訓練을 받지 않고도 自動적으로 活動하게 된다.¹⁰⁾ 다시 말하면, 좋은 習慣이 形成되면 동등한 習慣族에 해당하는 또 다른 좋은 習慣을 形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바람직한 人格形成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의 生活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觀點에서 볼 때는 發達段階이 이른 시기에 좋은 習慣을 形成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成人이 된 뒤 보다는 青年期에, 또 청년기 보다는 兒童期에, 또 같은 아동기에 있어서도 幼兒期 내지는 영아기에 될 수 있으면 어릴 때에 좋은 習慣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人間의 生活은 어린 시기일수록 形態化되어 있지 않으며, 可塑性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可塑性이 豊富한 시기에 좋은 習慣을 들이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な 일이다. 可塑性이 豊富한 時期는 習慣形成이 容易한 반면에, 나쁜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을 矯正하는 일도 역시 어려운 側面이 있다. 그러므로 幼兒期에 있어서의 習慣, 특히 基本的 習慣이 가지는 重要的 意義가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習慣은 넓은 의미로 볼 때 學習의 結

7) 教育學事典(서울 : 大韓教育聯合會, 1965), p.491.

8) 教育學辭典編纂委員會, 教育學大辭典(서울 : 教育出版公社, 1984), p.571.

9) G. H. Bower, E. R. Hilgard, 學習의 理論, 第5版, 李寬鎔 外譯(서울 : 中央適性出版社, 1988), p.81.

10) 教育學辭典(서울 : 大韓教育聯合會, 1965), p.491.

果이며, 習慣形成은 可型性이 豊富한 어린시기 부터 反復과 練習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 重要하기 때문에 幼兒期가 習慣形成의 適合한 時期로 봐야 하겠다.

習慣이 일단 잘 形成되면 身體的 行動을 自動的으로 統制할 수 있게 되고, 自信感으로 轉換될 수 있는 思考도 생겨나게 된다. 恣意的으로 그리고 必要한 境遇에는 強制的으로 自身이 원하는 行動 등을 反復함으로써 원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습관은 곧 身體的 行動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恣意的으로 모든 努力을 同一한 方向으로 계속 경주할 수 있게 된다.¹¹⁾

3. 習慣의 生活化

生活化는 어떤 行動이나 意識을 實際生活에 옮겨서 지켜 나가거나 좇아 지키게 하는 것¹²⁾이다. 다시 말하면, 生活化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行爲가 自然스럽게 몸에 배어 無意識的으로 自動的으로 행해지는 것¹³⁾을 말한다. 本能이 아니고 後天的으로 形成된 習慣을 生活化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每日 아침 朝刊新聞을 통하여 그날 그날의 消息을 自然스럽게 접하는 것처럼, 外出했다가 돌아 오면 自動的으로 손발을 씻는 것처럼, 自身의 健康을 위하여 매일 새벽에 조깅을 하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친숙해져서 無意識的으로 행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生活化되었다고 하고

있다.

生活化는 학습된 習慣과 經驗을 反復하여 그 結果가 有機體의 欲求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아무런 報償도 없고, 興味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生活化가 어렵게 된다.

生活化는 習慣形成의 結果이며, 習慣形成은 早期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幼兒期가 習慣形成의 適合한 時期이다. 일반적으로 習慣形成은 條件形成과 同義語로 사용되는데, 條件刺戟이 反應을 일으키게 되어 이것이 強化되면 習慣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習慣形成은 유기체가 形成된 習慣에 의하여 能率的이고 效果的으로 環境에 適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防衛機構(defence mechanism)라고도 볼 수 있으며, 強化의 反復에 의하여 確立된다.¹⁴⁾

그러면, 習慣이 形成되어 어떠한 行爲가 生活化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要因이 必要한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生活化의 條件은 크게 세가지 즉, 形態化, 練習과 強化, 動機化의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¹⁵⁾

그 첫 번째 단계는 形態化이다. 일정한 反應이 習慣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反應이 形態化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한 行動樣式, 일련의 行動體系가 바르게 정돈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形態化이다. 특히, 兒童에게 있어서 特定한 行動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環境이나 事態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은데, 이

11) Napoleon Hill,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손풍삼 번역(서울 : 고려원, 1995), p. 46.

12)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서울 : 어문각, 1992), p. 2, 239.

13) 宋錫熙, “讀書의 生活化”, 문교경북, 제87호(1986), p. 49.

14)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6권(서울 : 두산동아, 1996), p. 415.

15) 活用教育大事典(서울 : 信進出版社, 1972), p. 286.

때 어떠한 行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이 많아 틀린 反應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行動을 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은 盲目的인 行動體系로 形態化하는 것이 필요하며, 具體的인 行動의 模範을 보여 그 形態化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誘導하는 것이 必要하다.

두 번째 단계는 練習과 強化의 段階이다. 일정한 形態化를 거친 行動樣式은 이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機械化되고 自動化된다. 이렇게 自動化되면 일정한 環境과 事態에 直面하게 되면, 無意識중에 이 行動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自動化의 과정이 제2단계로서의 練習이다.

練習은 어떠한 學文이나 藝術, 技術 등을 익히기 위하여 行爲를 反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練習이 많아지면 연합이 강해지고, 練習을 하지 않으면 연합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報償이 따르지 않는 練習의 反復은 無意味할 수 있다.¹⁶⁾ 그래서 練習을 強化가 따르는 反應系列의 反復¹⁷⁾으로 定義하기도 한다.

우리는 經驗을 통하여 대부분의 學習이 한 두번의 試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反復的인 努力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練習은 동일한 行動의 機械的 反復이나 盲目的인 試行錯誤의 連續이 아니라 일정한 目標水準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改善

해 나가는 努力의 過程이며, 또한 練習을 통하여 습득되는 技能은 단순한 行動이 아니라 認知的인 能力을 必要로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¹⁸⁾

마지막으로 形態化와 練習과 더불어 중요한 習慣形成의 要因은 動機化이다. 動機化는 어떤 個體가 動因을 가지고 一定한 行動을 일으키는 것을¹⁹⁾ 말하는 것으로, 動機賦與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動機는 일정한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特定한 努力과 活動을 시작하여 계속해 나가는 精神的 態勢이다. 이러한 精神的 態勢를 動機라는 단어 이외에도 意慾, 願望, 決心, 意志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²⁰⁾

이와 같은 動機化를 學習과 관련시켜 살펴 보기로 한다. 學習指導에 있어서 動機化는 學習者의 興味, 요구, 經驗, 능력에 대한 充分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動機賦與는 繼續的이고 發展的이어야 하며, 繼續的이고 發展的일 경우에 바람직한 學習이 展開되는 것이다.²¹⁾

일반적으로, 學習의 動機를 賦與하는 方法은 自然的인 方法과 人爲的인 方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自然的인 動機賦與 方法은 外的 刺戟에 의하지 않는 行動의 動機를 가리키는데, 學習者의 흥미, 要求, 경험, 能力,²²⁾ 선택의 嗜好性 (preference), 의욕, 態度²³⁾ 등에 호소하는 方

16) 윤운성, 학습과 동기전략(서울: 文音社, 1995), p. 31.

17) R. M. Gagne and E. A. Fleishman,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9), p. 242(李溶傑, 學習의 基礎, 改訂版(서울: 培英社, 1976), p. 166에서 再引用)

18) 李溶傑, 學習의 基礎, 改訂版(서울: 培英社, 1976), p. 182.

19) 活用教育大事典(서울: 信進出版社, 1972), p. 155.

20) 李溶傑, 學習의 基礎, 改訂版(서울: 培英社, 1976), pp. 123-124.

21) 活用教育大事典(서울: 信進出版社, 1972), p. 156.

22) 教育學辭典編纂委員會, 教育學大辭典(서울: 教育出版公社, 1984), p. 285.

23) 장병림, "동기부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8권(서울: 두산동아, 1996), p. 192.

法이다.

한편, 人爲的인 方法으로는 ① 賞罰 혹은 칭찬과 叱責 ② 成功과 실패체험의 利用 ③ 學習目的을 確認시키는 일 ④ 學習場面이나 學習指導 形態에 대한 배려 등을 들 수 있다.²⁴⁾ 이러한 것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 ① 賞罰 혹은 칭찬과 叱責에 의해서 動機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쾌한 것을 추구하고 불쾌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人間의 本能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賞罰 혹은 叱責은 動機誘發의 手段이며, 상벌 혹은 질책 自體가 目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賞이나 칭찬은 벌이나 질책보다도 學習效果를 높인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질책은 知能이 높은 사람에게 보다 效果的이고, 知能이 낮은 사람에게서는 칭찬이 보다 效果的이다. 그리고, 男子에게는 叱責의 效果가 認定되지만 女子에게는 認定되지 않는다.²⁵⁾
- ② 成功이나 실패체험에 의한 動機化는 성공하면 積極的으로 하려고 하고, 실패하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분발하는 心理機制를 基礎로 한 것이다. 이것은 成功하게 되면 自信을 강하게 가지고 自己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努力하게 되고, 失敗하게 되면 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努力하는 데서 動機가 賦與되게 된다.
- ③ 學習目的을 確認시키는 것에 의한 動機化는 “學習意慾은 그것을 學習하는 目的을 알게 함으로서 學習意慾이 한층 強化된다”고

하는 心理的 基礎에 입각하고 있다. 때때로 偶然的 學習(incidental learning)이 有效한 경우가 있으나 學習의 目的과 內容을 명확히 한 다음에 學習하도록 援助하는 것은 學習者에게 學習動機를 賦與해 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學習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²⁶⁾

- ④ 學習場面 및 學習指導 形態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고 적절하면 자유롭고 활기에 찬 學習 氛圍에서 학습하게 되며, 個人差에 알맞는 學習을 시키고 발표나 視聽覺資料를 활용하는 指導形態를 취하게 되면 學習의 動機가 誘發된다.

以上에서 살펴 본 것을 다시 한번 整理해 보면, 바람직한 行動樣式을 造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行爲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誘導하는 形態化, 適切한 報償이 따르는 反復을 통하여 無意識중에 自動的으로 어떠한 行動이 일어나도록 하는 練習과 強化, 일정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特定한 努力과 活動을 시작하여 계속해 나가는 精神的 態勢인 動機賦與의 단계가 필요하다.

Ⅲ. 讀書生活化의 前提條件과 方案

1. 讀書生活化의 前提條件

讀書의 生活化는 讀書를 반복적으로 행한 결과 독서가 쉽고 친숙해져서 讀書習慣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讀書行爲가 무의식적인 상태에

24) 教育學辭典編纂委員會, 教育學大辭典(서울: 教育出版社, 1984), p. 285.

25) 活用教育大事典(서울: 信進出版社, 1972), pp. 156-157.

26) 上揭書, p. 157.

서 自動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讀書가 日常生活의 一部分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讀書의 生活化는 여러가지 日常生活의 行動樣式이 習慣化되는 것과 같이 形態化, 練習과 強化, 動機賦與의 段階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行爲이다.

이러한 讀書生活化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日常生活중에서 독서생활만을 분리해서 習慣形成을 圖謀한다는 것은 意味도 없고, 效果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讀書는 아동들의 日常生活속에서 무리가 없는 自然스러운 形態로 자리잡아 一般的인 生活習慣속에서 讀書習慣이 形成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讀書는 수면, 食事, 세면, 學習, 놀이, 家事, 심부름, TV視聽 등과 같은 日常生活의 一部分으로서 位置되어야 하며, 生活指導의 하나로서 指導하여 讀書가 生活속에서 重要視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讀書活動은 兒童의 마음이나 머리 그리고 전반적인 身體的인 條件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生活全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의 生活全體를 下部構造로 본다면, 이 下部構造를 統制하는 上部構造로서 讀書生活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면, 讀書生活化에 필요한 前提條件을 整理해 보기로 한다.

- (1) 讀書教育은 幼兒期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수면, 食事, 세면, 學習, 놀이, 심부름, TV

視聽 등과 같은 日常生活의 대부분의 習慣은 幼兒期에 그 形成의 基礎가 대부분 만들어진다. 讀書도 이상과 같은 基本的 習慣중의 하나로서 日常生活의 外部에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日常生活속에서 영위되는 行爲이기 때문에 生活能力의 一部分으로서 讀書能力을 認定하여 幼兒期부터 讀書習慣을 形成해 나가는 教育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²⁸⁾

그리고, 讀書興味の 發達段階의 첫 번째 단계는 자장이야기期인데, 年齡은 2세에서 4세 정도로 이 단계는 주로 家庭에서 禮儀凡節을 가르치는 시기이다.²⁹⁾ 이렇게 幼兒期를 讀書興味 發達段階의 첫 번째 段階로 導入한 것은 이 時期가 個人的인 讀書活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야기를 들려 주어 讀書習慣 形成의 基礎를 다져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最近 兒童 및 靑少年을 대상으로 讀書 障礙要因을 調査한 것을 보면 '책읽는 것이 싫고 習慣이 들지 않았다'고 對答한 境遇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³⁰⁾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習慣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처럼 讀書習慣 역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幼兒期부터 習慣形成을 위한 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知的 好奇心이 풍부한 靑少年期의 독서는 그 印象이 강하여 成人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平生 하나의 啓示처럼 항상 마음의 深層部에 남아 있기 때문에 讀書教育은 될 수 있으면 早期에 실시하여 讀書習慣 形成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서울: 京仁文化社, 1982), p. 307.

28) 滑川道夫, "讀書習慣의 形成," 新讀書指導事典(東京: 第一法規, 1981), p. 127.

29) 圖書館教育研究會, 讀書指導通論: 兒童と靑少年의 讀書活動(東京: 學藝圖書, 1984), p. 53.

30) 제5회 국민독서 실태조사(서울: 한국출판연구소, 1997), p. 152.

(2) 讀書教育은 學校教育의 核心的인 位置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讀書教育은 대부분이 形式的이고 無計劃的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동안 教育部와 市·道 教育廳에서는 讀書教育의 必要性을 「學校教育 運營指針」이나 「讀書指導의 活性化 方案」등의 獎學指針을 통하여 強調하여 왔다. 그러나, 讀書教育이 學校現場에서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實施된 경우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 그나마 讀書教育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일제독서시간, HR시간, CA시간을 이용하거나 보강시간을 통한 集團讀書 등이 고작이었고, 그 內容과 方法은 文學類一邊倒의 책읽기와 讀後感 쓰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³¹⁾

거의 모든 학교의 讀書教育은 教育課程과 無關하게 教養爲主로 운영되었으며, 教科學習을 마치고 난 다음에 餘力이 있으면 讀書하는 식의 餘暇活動으로 취급되어 教育課程上의 核心的인 位置와는 거리가 먼 여별로 취급되었다. 情報時代의 독서는 教養爲主나 教育課程과 거리가 먼 여별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正規教育課程 形態로 자리잡아 學校의 교육과정상 核心的인 位置를 차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讀書를 통하여 創意力과 問題解決能力을 기르면 教科學習이나 日常生活에 있어서 充分한 報償을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런 報償도 없이 讀書만 強調한다고 해서 그냥 讀書生活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重要性 強調와 더불어 充分한 報償이 이루어질 때

讀書의 生活化를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3) 讀書를 獨立된 教育課程으로 編成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우리의 讀書教育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語教育의 實踐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래서 흔히들 讀書하면 國語, 讀書하면 文學, 讀書하면 小說읽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讀書는 읽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읽기는 國語科에 포함되는 領域이다. 우리나라의 教育課程을 歷史的으로 살펴 보아도 讀書教育은 國語科에 소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先進國에서는 讀書教育의 개념을 좁게 보지 않고 폭 넓게 봐서 國語科에 소속시키는 관점에서 벗어나 獨立된 教育의 한 分野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는 國際讀書學會(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의 報告書나 거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文獻을 보면 變化와 發展의 樣相을 알 수 있다.³²⁾

그러면, 讀書教育과 國語教育을 언제 어떻게 分離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初等學校 低學年의 독서는 「讀書」가 아닌 「읽기」지도를 통해서 讀書教育의 基礎를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개 初等學校 中學年까지는 國語科에 포함시켜 讀書自立能力을 길러 주고, 初等學校 高學年부터는 讀書教育을 國語科에서 獨立시켜 모든 教科學習이나 日常生活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讀書教育을 계속해서 國語科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이것은 讀書教育이 아니라 文學教育이 되어 버린다. 물론

31) 朴容科, “高校 讀書教育 이대로 둘 것인가 : 획기적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출판저널, 제7호(1987. 10. 20), p. 41.

32) 朴鵬培, 國語教育各論(서울 : 한샘, 1988), p. 14.

론 文學이 훌륭한 讀書資料임에는 分明하지만 文學이 讀書資料 全體가 될 수는 없다. 폭 넓은 人格完成을 위해서는 文學 뿐만이 아니라 哲學, 종교, 社會科學, 자연과학, 歷史, 언어 등 다양한 主題와 다양한 文化에 걸친 폭 넓은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996년부터 施行된 제6차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국어영역에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독서」 과목을 新設하여, 「독서」 과목의 意義를 凡 敎科的인 學習能力的 提高라고 명시하면서 內容을 讀解爲主로 展開하고 있다. 물론 읽기와 讀解 學習이 基礎가 되어야 다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初等學校 학생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中·高等學校 教育課程에서 凡 敎科的인 學習能力的 提高는 自主學習, 創造學習의 能力을 제고시켜 問題解決能力을 길러주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教育現場의 實情을 고려해 볼 때 特定 敎科擔當敎師가 讀書教育을 담당하게 되면 개인별 시수문제 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讀書教育이 一般敎科에 비해서 優先順位에서 뒷진으로 밀려 그 運營이 거의 形式的으로 進行되어 버리고 말 可能性이 大分하다.

따라서, 讀書教育은 다른 敎과 的의 일부로 취급하거나 다른 敎과 的의 下位概念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教育課程으로 編成하여 진정한 凡 敎科的인 學習能力的 제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다.

- (4) 讀書興味 發達段階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일에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繼續的

이고 反復的인 行動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일에는 반드시 興味가 있게 마련이다. 興味는 어떠한 對象의 內容에 대하여 特別한 注意를 기울이게 되는 感情이다.³³⁾ 다시 말하면, 興味는 어떠한 行動의 對象을 選擇하는 個人의 傾向性이다. 人間의 모든 行動은 어떠한 興味없이 習慣化를 期待할 수는 없다.

人間의 모든 興味의 中心은 年齡에 따라 變化한다. 讀書의 興味도 年齡 즉 兒童 및 靑少年의 成長過程에 따라 發達하게 된다. 그러므로 讀書 興味의 發達は 年齡의 發達에 따라 自然的으로 變化하는 成長段階와 완전히 一致한다.

모든 學習이 興味와 要求 그리고 能力에 대한 充分한 配慮가 있어야 하지만 讀書는 다른 어떤 行爲보다도 즐거움과 재미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하고, 必要性和 誠實性에 바탕을 두어야 效果가 있다. 예를 들어, 圖書의 價値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古典讀書만을 強要한다면 讀書行爲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되어 결국은 흥미를 잃게 되고 讀書習慣의 形成은 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兒童 및 靑少年의 成長過程에 따른 讀書興味 發達段階를 考慮하여 適切한 讀書資料를 選擇하여 提供해 주고, 나아가 興味와 要求 및 能力에 알맞는 適書를 選擇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는 것이 대단히 重要的 일이다.

- (5) 讀書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充分히 高취 시켜야 한다.

情報社會에서 모든 組織은 정보를 등한시 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으며, 정보를 게을리 하면

33)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서울 : 三省出版社, 1987), p.3, 839.

나오자가 되어 버린다. 情報社會에서는 過去의 資本과 勞動의 關係와는 根本적으로 다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知識과 情報을 얼마나 많이 所有하고 있으며 잘 活用하고 있는가에 따라 支配와 被支配 關係가 成立되는 것이다.

이처럼 現代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自身에게 알맞는 새로운 知識과 情報을 얻기 위하여 讀書資料와 계속해서 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는 生活을 위한 독서, 生存을 위한 독서, 知識獲得을 위한 讀書가 讀書生活의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情報社會는 知識과 技術發展의 速度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學校教育에서 습득한 知識과 情報은 졸업하고 나면 불과 몇년 사이에 쓸모없는 知識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知識과 情報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社會이다. 이와 같이 未來社會는 情報處理能力을 기르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知識과 情報을 찾아내고 活用하여 體系化하는 能力 즉, 學習方法을 學習(learn how to study)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讀書는 視空間의 移動이 自由롭고 思考力을 發達시켜 줄 뿐만 아니라 經驗의 폭을 擴張시켜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長點을 強調하여 讀書의 意識化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讀書를 해야만 인간답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觀念이 國民全體에게 意識化되어야 한다.³⁴⁾

그러므로, 情報社會에 필요한 情報處理能力 개발의 重要性和 독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長點을 매스컴은 물론 家庭과 學校 그리고 社會

의 各界 各層에게 지속적으로 強調하여 讀書生活化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日本의 경우 國民 讀書生活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讀賣新聞, 朝日新聞, 毎日新聞, 東京新聞, 産經新聞 등의 주요 日刊紙 1면 廣告欄에는 廣告料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新刊圖書 廣告를 위한 紙面으로 할애하고 있다. 그것도 단 하루나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365일 도서 광고밖에 없다는 사실이 놀랄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主要 日刊紙의 1면 廣告欄에는 企業廣告나 성명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日本에서는 出版社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사시사철 讀書를 하는 것이 生活化되어 있기 때문에 讀書週間이나 讀書의 季節 등은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言論과 매스컴이 앞장서서 讀書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國民은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讀書량이 훨씬 많은 편이다.³⁵⁾

따라서, 언론과 매스컴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讀書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강조하고, 讀書生活化를 위한 靄圍氣를 造成해 나가야 한다.

(6) 讀書에 대한 充分的 報償과 動機賦與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이 報償과 動機賦與가 따르지 않으면 소기의 效果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學習에 있어서는 動機賦與가 學業成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一般的으로 높은 動機水準은 學業成就도를 높여 주며, 마찬가지로 높은 學業成就도는 높은 動機를 誘發한다.³⁶⁾ 따라서, 讀

34) 宋錫熙, "讀書의 生活化," 문교경부, 제87호(1986), p. 53.

35) 이규형, J.J가 온다(서울 : 해냄, 1998), pp. 89-91.

書生活化를 위해서는 讀書에 대한 充分한 報償과 動機賦與가 뒤따라야 한다.

學校教育에서 讀書를 게을리 하면, 學業成就도 낮고 問題解決能力도 저조하여 結局은 낙오자가 된다는 等式이 成立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等式이 成立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教養이나 餘暇善用을 위한 讀書가 아니라 教育課程 展開에 이바지하고 特別活動이나 學校行事에 도움을 줄 수 있는 讀書 즉 學習讀書(reading to learn)의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결국, 讀書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學習에 妨害가 되고 時間만 浪費하게 된다면 아무도 讀書를 하지 않을 것이다. 讀書를 열심히 하면 學業成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問題解決能力이 育成되어 社會生活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칭찬을 하거나 표창제도를 도입하는 方案도 강구하여 充分한 報償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讀書環境을 造成하여 讀書習慣 形成을 위한 刺戟을 주어야 한다.

讀書習慣形成은 讀書生活을 하는 場所인 家庭, 學校, 社會의 讀書環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독자의 讀書生活에 있어서 독서의 環境的인 條件은 刺戟的인 要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環境的인 刺戟을 주기 위한 讀書環境은 讀書場所와 圖書館 등의 요인, 그리고 讀書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社會的인 要因과 精神的인 要因 등으로 성립될 수 있다.

讀書의 環境的인 條件은 讀書能力이 發達하여 讀書에 대한 즐거움과 興味를 깨닫게 되는 初等學校 2學年 2學期에서 4學年까지의 時期와 問題解決을 中心으로 讀書能力이 發達하고 讀書의 眞價를 깨닫게 되는 中學校 2學年 後半期에서 高等學校까지의 時期에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讀書行動의 發達速度가 빠른 時期에 環境的인 刺戟이 가장 강하게 影響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이러한 環境的인 條件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讀書의 成果를 期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環境造成을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와 靑少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讀書資料와 접할 수 있도록 讀書資料를 豊富하게 備置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와 靑少年이 항상 접촉하고 있는 父母, 兄弟, 친구, 教師 등과의 環境的인 人間關係를 만들어 環境的인 刺戟을 받도록 해야 한다.³⁸⁾

最近, 靑少年을 對象으로 圖書의 入手動機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구, 父母, 형제, 教師, 광고 등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³⁹⁾, 讀書에 가장 강한 影響을 준 사람은 친구와 父母兄弟, 教師로 나타나⁴⁰⁾ 環境的인 人間關係가 重要한 要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成人의 讀書習慣과 態度가 어린이와 靑少年에게 대단히 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家庭에서는 父母가 學校에서는 教師가 훌륭한 讀書生活의 模範을 보여 讀書氛圍氣 造成에 기여하여야 한다.

36) 丁鍾鎮, 動機와 學習(서울: 星苑社, 1991), p. 7.

37) 金京一, 讀書教育論(서울: 一潮閣, 1980), p. 170

38) 上揭書, p. 171.

39) 제5회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한국출판연구소, 1997), p. 169.

40)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 讀書論(東京: 山喜房佛書林, 1985), p. 143.

2. 讀書의 生活化 方案

讀書生活化는 讀書習慣이 形成되어 독서가 睡眠, 식사, 學習, 놀이, 심부름 등의 여러 가지 日常生活와 같이 生活의 一部分으로 定着된 狀態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讀書가 生活의 一部分으로 定着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行爲가 하루아침에 단 한번의 試圖로 習慣化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性格의 일은 아니다. 讀書生活化는 모든 學習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 動機賦與, 練習과 強化, 充分한 報償 등이 주어져야 讀書生活化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習慣의 生活化와 讀書生活化를 위한 前提條件을 基礎로 하여 家庭과 學校 및 地域社會에서 실천할 수 있는 讀書生活化를 위한 여러 가지 方案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圖書에 대한 親近感을 길러준다.

讀書는 먼저 讀書資料에 대한 親近感을 가지는 것에서 부터 出發해야 한다. 讀書習慣 形成의 觀點에서 생각해 보면, 讀字力이 없어도 그림을 보고 理解할 수도 있고, 귀로 듣고서 아름다운 吟味하고 즐길 수도 있으며, 읽지 않고서도 圖書와 接觸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讀書와 無關한 것은 아니고 讀字力의 準備性이 갖추어지기 이전의 指導로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幼兒期에 그림책을 人形처럼 가지고 놀게 하는

것도 讀書生活化를 위하여 無意味한 行爲는 아니다. 어떠한 對象物에 接近하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한 親近感을 誘發할 수는 없기 때문에 幼兒期에 感覺的으로 接觸해 보는 過程이 重要하게 된다.⁴¹⁾

이러한 圖書에 대한 親近感을 基礎로 讀書習慣 形成으로 이어지는 過程을 보면, 먼저 讀字力이 發達하지 않은 幼兒期에는 그림책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그 兒童의 語彙範圍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讀書의 基礎를 마련하는데 重要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 단계로 storytelling을 통해서 讀書의 基礎를 마련하고 독서에 대한 親近感과 意慾을 길러 주도록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自身の 讀字力으로 讀書하는 時期가 되면 父母나 指導者와 교대로 독서하거나 父母와 兒童이 함께 독서하는 親子讀書를 통하여 讀書에 대한 親近感을 育成하도록 한다. 이러한 行爲를 反復함으로써 讀書習慣을 形成해 갈 수 있게 된다.⁴²⁾

그러면, 圖書에 대한 親近感을 誘發시켜 주는 方案을 독서흥미 발달단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³⁾

- ① 生後 2개월부터는 色感이 溫和한 그림들을 보여 주어 印刷媒體에 대한 親近感을 갖도록 하고, 生後 6개월부터는 그림책을 보여 주거나 bedside story를 들려 주어 讀書興味 誘發의 씨앗을 심어 준다.
- ② 첫돌부터 두돌까지는 책을 읽어 주어 자연

41) 滑川道夫. "讀書習慣의 形成." 新讀書指導事典(東京: 第一法規, 1981), pp.127-128.

42) 上揭書, p.128.

43) 황백현. 讀書心理學概論(부산: 國民讀書運動會, 1988), pp.34-43과 孫正彪. 讀書指導方法論(서울: 學文社, 1978), pp.58-69 參照.

스럽게 듣는 霧圍氣를 造成하고, 그림책이 나 동화책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도록 한다.

- ③ 두돌부터 세돌까지는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reading active를 실시한다. 그리고, 同一한 種類의 책을 反復해서 읽어 주고, 한편의 책을 反復해서 보도록 한다.
- ④ 3세부터 4세까지는 간단한 漫畫形態의 책을 보여 주고, 健全한 內容을 素材로 한 bedside story를 들려 준다.
- ⑤ 4세부터 5세까지는 自然이나 生物에 대한 內容과 勸善懲惡을 素材로 한 生活樣式에 관한 책을 읽어 주고, 簡單하고 큰 글자로 된 책을 成人과 함께 즐기도록 한다.
- ⑥ 5세부터 6세까지는 童話나 재미있는 그림 또는 옛날이야기책을 통하여 文字教育을 실시하여 教科書의 무미건조함을 피하면서 讀書興味를 誘發시킨다.
- ⑦ 初等學校 1·2학년(6~7세)시기는 主客未分化 時期이기 때문에 擬人화된 童話나 寓話의 內容을 그대로 믿는 時期이므로 그 속에 숨어 있는 教訓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成人과 함께 맛보도록 한다.
- ⑧ 初等學校 3·4학년(8~9세)시기에는 冒險的이고 英雄的인 內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欲求에 부합하는 책을 提供하도록 하고, 아울러 아름다움을 追求하는 시기이므로 예쁜 童詩를 즐기게 한다.
- ⑨ 初等學校 5·6학년(9~10세)시기는 友情이나 社會的 責任을 重視하는 時期이므로

少年少女이야기, 冒險·담정이야기, 感傷的인 이야기 등 自活的이고 義俠心이 강한 圖書를 提供한다.

- ⑩ 中學生期(12~14세)는 思春期인 동시에 精神的 離乳期이므로 客觀的인 價値基準을 익힐 수 있는 傳記類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高等學校와 大學時期(15~20세)에는 內面生活의 저항에 興味를 가지는 시기이므로 平凡한 사람들의 人間美를 그린 傳記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未來를 準備하기 위한 讀書의 必要性和 當爲性을 認識하고 스스로 圖書를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한다.

(2) 讀書興味를 誘發시켜 준다.

모든 行爲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그 일을 繼續的으로 反復할 수 있듯이 讀書 또한 興味가 있어야 讀書生活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讀書의 生活化를 위하여 讀書興味를 誘發시켜 주는 것은 대단히 重要的인 일이다. 兒童의 認識의 發達은 言語能力의 發達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 4~5세까지 그림책에 대한 興味를 기르지 못하면 初等學校 低學年 兒童은 讀字力이 있어도 讀書興味가 進展되지 못하게 된다. 讀書興味가 수반되지 않는 독서는 強制的인 讀書가 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오히려 讀書活動을 沮害하게 되어 讀書習慣 形成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⁴⁴⁾

讀書興味는 讀書習慣의 形成過程을 內面에서 支持하기 때문에 兒童이 현재 가지고 있는 讀書興味를 理解하는 것은 물론이고, 讀書資料에 대

44) 灌川道夫, "讀書習慣의 形成," 新讀書指導事典(東京: 第一法規, 1981), p. 128.

한 興味를 높이고 讀書活動 自體에 대한 興味를 높이는 方案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讀書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슴깊이 느끼는 것이 習慣化에 유력한 原動力이 된다.⁴⁵⁾

그러면, 讀書興味를 誘發할 수 있는 方案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⁶⁾

- ① Storytelling을 실시한다.
- ② 兒童이나 學生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問答이나 對話를 통해서 讀書興味를 증진시킨다.
- ③ 讀書興味 發達段階에 알맞는 圖書를 選定하여 一部分 또는 全體을 읽어 주거나 읽도록 한다.
- ④ 소풍이나 見學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접해 보지 못한 內容을 經驗시킨 후 새로운 경험을 讀書를 통하여 補充하거나 疑問을 풀게 한다.
- ⑤ 구두, 게시판, 放送, 新聞, 展示, 視聽覺 資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圖書紹介를 한다.
- ⑥ 도서의 內容을 演劇이나 人形劇 등의 方法으로 劇化시킨다.
- ⑦ Book talk를 실시한다.
- ⑧ 讀書表彰制度를 실시한다.
- ⑨ 독서퀴즈를 실시한다.
- ⑩ 讀書勸獎表를 다양하게 만들어 配布한다.
- ⑪ 讀書感想文, 독서노트, 讀書日誌 등을 記

錄하여 모아 두는 習慣을 기른다.

- ⑫ 讀書習慣形成에 必要한 讀書技術과 態度를 育成시킨다.

(3) 學習讀書를 實施한다.

지금까지의 讀書教育은 教育課程과 무관하게 教養爲主나 餘暇善用 次元에서 教科學習 이외의 副産物로 取扱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國語科에 포함시켜 文學爲主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國語成績에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文學爲主의 편협된 독서가 아니라 多様な 主題에 걸친 폭 넓은 讀書를 實施하고, 形式的이고 非體系的인 讀書教育이 아니라 教科學習을 원조해 줄 수 있는 讀書教育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讀書教育이 教育課程上 核心的인 位置를 차지하여 教科學習속에 讀書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교육을 강조하여 創意力 開發과 自主學習을 圖謀하고 있으나 教科學習과 特別活動 등을 援助할 수 있는 體系的인 讀書教育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讀書習慣을 형성하여 讀書가 生活化되기 위해서는 讀書教育이 教育課程展開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든 教科科目을 반영할 수 있는 讀書教育을 실시하여 讀書가 教科學習의 核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讀書가 學習의 一部分이 되어 모든 兒童이나 學生이 자연스럽게 讀書習慣을 形成하여 讀書生活化를 圖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學習讀書를 實施하기 위한 方案을 정

45) 上掲書, 同面.

46) 李京植, 새로운 讀書指導: 讀書에 의한 어린이의 人格形成(서울: 集文堂, 1976), pp. 54-56; 金京一, 讀書教育論(서울: 一潮閣, 1980), pp. 184-196;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서울: 京仁文化社, 1976), pp. 306-312;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 讀書論(東京: 山喜房佛書林, 1985), pp. 150-152; 野地間家, 藤原宏, 室伏武, 讀書指導實踐事例集(東京: 第一法規, 1978), pp. 3, 034-3, 175를 綜合한 內容임.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讀書資料의 選定은 모든 教科書의 內容을 分析하여 教育課程을 直接 援助할 수 있는 圖書를 選定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教科書에 나오는 書名, 人名, 主題名 등을 對象으로 圖書를 選定하도록 한다.
- ② 教科擔當教師는 各 教科에서 選定된 圖書를 읽고 內容을 充分히 理解한 學生이 높은 學業成就를 達成할 수 있도록 教科學習을 展開하여야 한다.
- ③ 教科書와 參考書 爲主의 學習을 止揚하고 各 教科에서 選定된 讀書資料를 中心으로 創意力 開發과 問題解決能力 育成을 위한 學習의 方向으로 教科授業을 進行하도록 한다.
- ④ 各 教科目에서 選定된 讀書資料는 充分한 複本을 學校圖書館에 具備하여 자유로운 讀書가 可能하도록 讀書環境을 整備해야 한다.

(4) 讀書에 대한 充分한 報償과 動機賦與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떠한 行爲이든 그 行爲가 報償을 받을 수 있어야 만이 反復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처럼 讀書의 경우도 어떠한 報償이 주어져야만 反復的인 讀書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報償이나 動機賦與가 없으면 繼續的인 讀書生活을 期待할 수 없으며 讀書生活化도 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讀書生活化를 위한 報償과 動機賦與의 方法에 대하여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讀書生活이 充實하면 充實할수록 높은 學業成就에 到達할 수 있도록 教科學習을 展開하도록 한다.
- ② 兒童과 學生들의 興味, 요구, 經驗, 능력, 態度 등을 考慮하여 發達段階에 알맞는 讀書資料를 제공하여 精神的인 空腹感과 知的好奇心을 讀書를 통하여 解消하도록 한다.
- ③ 學校, 社會, 企業, 정부 등 各界 各層에서 讀書勸獎 및 讀書表彰制度를 多樣하게 實施하도록 한다.
- ④ 讀書의 의한 失敗와 成功의 事例를 들어 讀書의 重要性和 自信心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어린이를 위한 역사」를 읽고 世界的인 考古學者가 된 하인리히 쉐리만(Heinrich Schliemann)의 경우라든가 스투우 부인이 쓴 「툼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고 奴隸를 解放시킨 링컨(Abraham Lincoln) 大統領의 경우⁴⁷⁾ 그리고 소아마비에 걸린 初等學校 學生이 「헬렌켈러」를 읽고 希望과 自信心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事例가 있다.
- ⑤ 學習目的을 確認시키는 것에 의한 動機賦與의 方法에 根據하여 讀書의 目的과 效用을 明確하게 하여 讀書動機를 賦與하고 讀書生活化의 길로 誘導한다.
- ⑥ 讀書教育의 形態를 印刷媒體 뿐만 아니라 各種 視聽覺機教材를 活用하여 讀書動機를 誘發시켜 讀書의 世界로 案内한다.

47) 김영진, 책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서울 : 웅진출판, 1995), pp.38-42, 57-60.

Ⅳ. 要約 및 結論

情報社會에서는 産業社會가 必要로 하던 資本·勞動·土地의 3要素 以外에 知識과 情報가 重要한 生産要素로 追加되었다. 그래서, 情報社會에서는 讀書을 통하여 必要한 知識과 情報를 蒐集하여 活用하는 能力 즉 創意力은 물론 問題解決能力과 情報處理能力을 育成하는 것이 生存의 關鍵이 된다. 결국, 情報社會에서는 과거의 教養이나 趣味를 위한 讀書보다는 生存을 위한 讀書, 知識과 情報獲得을 위한 讀書가 重視되고 있다. 讀書는 生活 그 自體가 되어야 하고, 生活의 一部分이 되어 讀書가 生活化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讀書가 國家의 未來를 決定짓는 重要한 活動으로 認定하면서도 어떻게 讀書을 生活化할 것인가에 대한 方案에 대해서는 代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以上에서 살펴 본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讀書을 生活化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讀書習慣을 形成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 讀書은 우리의 日常生活과 유리된 活動이 아니기 때문에 日常生活속에 自然스럽게 자리를 잡아 食事, 수면, 學習, 놀이, 家事, 심부름, TV시청 등과 같은 一般的인 生活習慣속에서 讀書習慣이 形成되어야 한다.

習慣은 反復的인 施行을 통하여 쉽고, 親熟해져서 深思熟考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自動的으로 하게 되는 行爲 또는 反應樣式이다. 이러한 習慣이 反復과 強化의 段階를 거치게 되면 그 行爲가 自然스럽게 몸에 배어 無意識的으로 自動的으로 행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狀態를 우리는 生活化되었다고 한다.

讀書을 포함한 모든 行爲의 生活化는 學習된 習慣과 經驗을 反復하여 그 結果가 有機體의 欲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런 報償도 없고 興味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生活化가 어렵게 된다.

讀書의 生活化는 여러 가지 日常生活의 行動樣式이 習慣化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行爲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誘導하는 形態化, 適切한 報償이 따르는 反復을 통하여 無意識중에 自動的으로 어떠한 行動이 일어나도록 하는 練習과 強化, 일정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特定한 努力과 活動을 시작하여 계속해 나가는 精神的 態勢인 動機賦與의 단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讀書生活化에 必要한 前提條件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讀書教育은 幼兒期부터 實施하여야 한다.
- ② 讀書教育은 學校教育의 核心的인 位置에 두어야 한다.
- ③ 讀書을 獨立된 教育課程으로 編成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 ④ 讀書興味 發達段階를 考慮하여야 한다.
- ⑤ 讀書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充分히 高취시켜야 한다.
- ⑥ 讀書에 대한 充分한 報償과 動機賦與가 있어야 한다.
- ⑦ 讀書環境을 造成하여 讀書習慣形成을 위한 刺戟을 주어야 한다.

끝으로, 讀書生活化 方案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圖書에 대한 親近感을 길러 준다.
- ② 讀書興味를 誘發시켜 준다.

- ③ 學習讀書를 實施한다. 루어지도록 한다.
④ 讀書에 대한 充分한 報償과 動機賦與가 이

參 考 文 獻

- 金京一. 讀書教育論. 서울 : 一潮閣, 1980.
圖書館教育研究會. 讀書指導通論 : 兒童と 青少年の 讀書活動. 東京 : 學藝圖書, 1984.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 서울 : 京仁文化社, 1982.
朴鵬培. 國語教育各論. 서울 : 한샘, 1988.
邊宇烈. “高等學校「讀書」教科에 관한 研究.” 도서관, 제49권, 제3호(1994 가을), pp. 3-30.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 태일사, 1999.
宋錫熙. “讀書의 生活化.” 문교경북, 제87호 (1986), pp. 49-54.
野地潤家, 藤原宏, 室伏武. 讀書指導實踐事例集. 東京 : 第一法規, 1978.
윤운성. 학습과 동기전략. 서울 : 문음사, 1995.
李京植. 새로운 讀書指導 : 讀書에 의한 어린이의 人格形成. 서울 : 集文堂, 1976.
李溶傑. 學習의 基礎. 改訂版. 서울 : 培英社, 1976.
丁鍾鎮. 動機와 學習. 서울 : 星苑社, 1991.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 讀書論. 東京 : 山喜房佛書林, 1985.
滑川道夫. “讀書習慣의 形成.” 新讀書指導事典. 東京 : 第一法規, 1981. pp. 127-128.
황백현. 讀書心理學概論. 부산 : 國民讀書運動會, 1988.
Bower, Gordon H., Ernest R. Hilgard. 學習의 理論. 李竟鎔 外譯. 제5판. 서울 : 中央適性出版社, 1988.
Hill, Napoleon.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손풍삼 譯. 서울 : 고려원, 1995.